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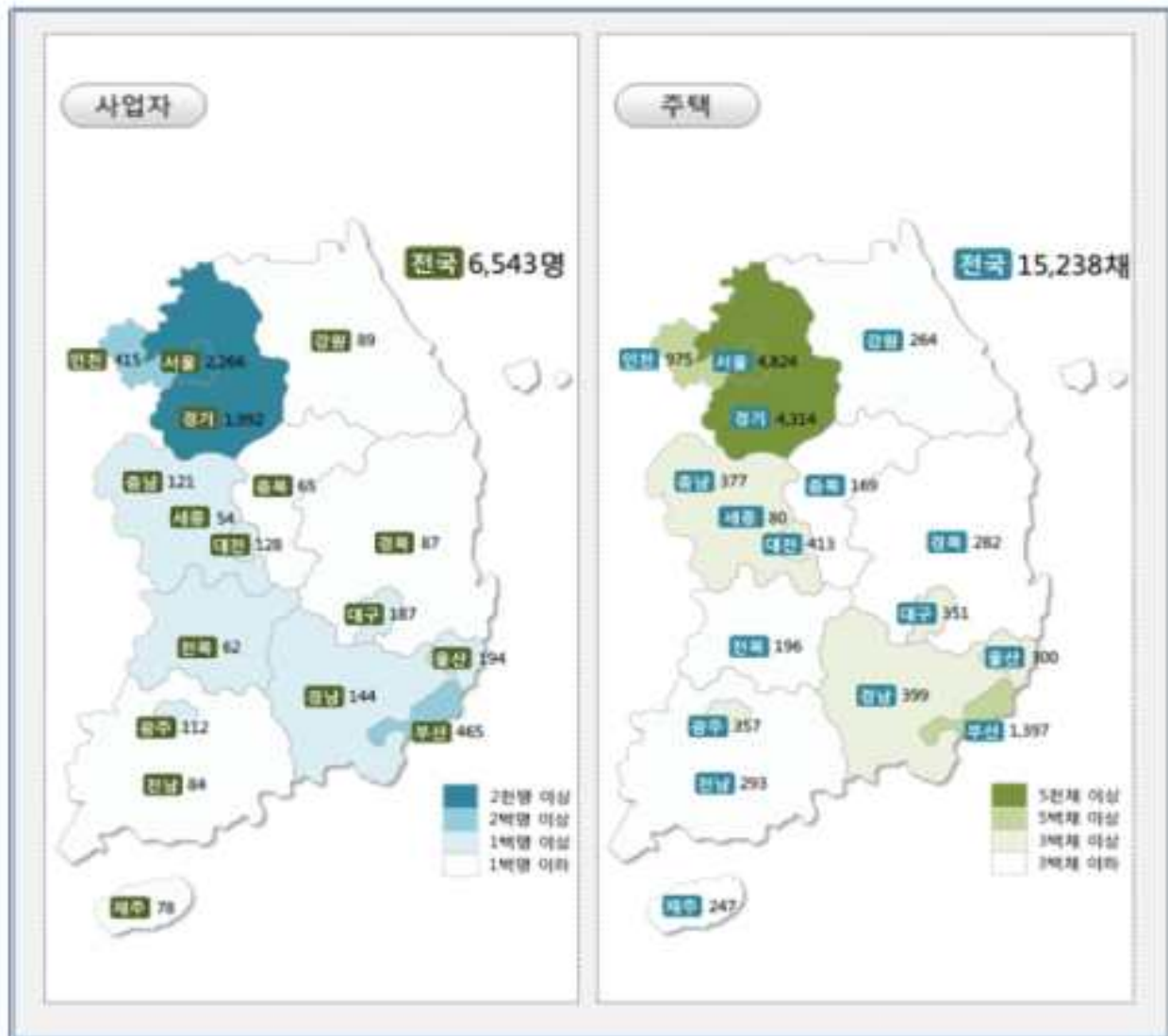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9. 2. 22.(금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석기, 주무관 김경은 • ☎ (044) 201-3363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19.1월 신규 임대사업자 6,543명 및 임대주택 15,238채 등록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54.6% 감소, 신규 등록주택 58.7% 감소

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

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9.1월 한 달 동안 6,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, 등록 임대주택은 15,238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[등록 임대사업자 수]

- 전국에서 19.1월 한 달간 6,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('19.1월말)까지 총 41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.

* ('18.10) 11,524명 신규등록 ('18.11) 9,341명 신규등록 ('18.12) 14,418명 신규등록

-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가 전월 대비하여 54.6% 감소하였으며, 이는 '18.4월 이후 최저치로, 전년도('17.1~'18.12) 월평균(8,898명) 대비 73.5% 수준으로 집계된다.
-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.6%→71.4%로 감소하였다.
 -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,266명으로 전월 5,421명 대비 58.2% 감소하였다.
 -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,673명으로 전월 11,190명 대비 58.2% 감소하였다.
 -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,870명으로 전월 3,228명 대비 42.0% 감소하였다.

[등록 임대주택 수]

- 전국에서 19.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,238채이며, 현재('19.1월말)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 7천 채다.

* ('18.10) 28,809채 신규등록 ('18.11) 28,892채 신규등록 ('18.12) 36,943채 신규 등록

-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하여 58.7% 감소하였으며, 이는 전년도('17.1~'18.12) 월평균(22,323채) 대비 68.3% 수준으로 집계된다.
-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이 70.3%→66.4%로 감소하였다.
 -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,824채로 전월 12,395채 대비 61.1% 감소하였다.
 -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,113채로 전월 25,956채 대비 61.0% 감소하였다.
 -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5,125채로 전월 10,987채 대비 53.4% 감소하였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
 -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,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.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경은 주무관(☎ 044-201-3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